영어어문교육 제2호

영어부정사 연구 : *To*-부정사를 중심으로

최 종 욱
(공주대학교)

Choi, Jong-Wook, (1996). A Study of English Infinitive: with priority given to *To*-Infinitiv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2, 81-130.

The infinitive is a verbal noun which for many centuries has been gradually acquiring more and more verbal force. The infinitive with *to* was originally a noun in dative governed by the preposition *to*, hence was in the first stages of its development a prepositional object modifying the verb. This *to*, as can still be seen in many sentences, originally meant *toward* and pointed that which the activity of the main verb was directed.

For centuries the *to*-infinitive and its modifiers have been developing into a distinct subordinate clause of a new type. Today the infinitive clause introduced by *to* is a form of expression which is felt and used as a more convenient subordinate clause than the more formal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clause introduced by *that*. The *to* of the infinitive has become in all abridged clauses a conjunction, so that we speak of a *to*-clause just as we speak of a *that*-clause.

The insertion of the adverb here beween *to* and the infinitive cannot even in the strictest scientific sense be considered ungrammatical. *To* has long since ceased to be a preposition, just as *that* in the corresponding *that*-clause has long since ceased to be a determinative pronoun pointing to the following clause. Both *to* and *that* have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here lost their old force and have assumed a new function. In the older form of the infinitive construction the adverb preceded the *to* and this is still the more common form of expression, but, as the feeling grows that *to* should introduce the clause, it becomes more common to place the adverb after the *to*.

The large number of errors in postmodifying structures, for example, seems to call for extensive drills keyed to specific nouns and adjectives. Errors in the use of *be* + *to*-infinitive, on the other hand, might be effectively combatted with an avoidance strategy, since this structure is not common in colloquial English anyway, and there are simpler alternative (with the modal verbs)available to express the same meaning. In any case, careful explanation of the errors as it occurs will increase the learner's cognitive grasp of the language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and his eventual practical control of it as well.

I. 서 론 : 부정사의 기원 및 발전

현대영어 안에서 *to*-부정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보아 *to*-부정사의 용법의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나타내는 뜻이 다양하며 각종 구문에서 중요한 구문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선 *to*-부정사는 전치사인 *to*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 목적이나 방향이라는 뜻을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음은 물론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의 <구성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또한 *to*-부정사는 각종 구문안에서 <절>의 역할을 대행하여 의미상의 주어(sense subject)를 동반할 수 있는가 하면, 대격(accusative)과 결합하여 이른바 <대격 + *to*-부정사> 구문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형용사적 또는 부사적으로 쓰여 각종 수식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할 때 현대영어에서 *to*-부정사는 단순 부정사(simple infinitive)에 비해 그 용법의 범위가 훨씬 다양하다 할 것이다.

부정사는 수세기 동안 동사적인 성격을 강화시켜 온 동사적 명사(verbal noun)였다. 고대영어 당시만 해도 유사이전 이미 모습을 감춘 속격(genitive case)을 제외한 다른 격에서 부정사는 명사로서 굴절변화를 했다. 즉, 주격(nominative)과 대격(accusative)에서는 *writan*(to write)으로 그리고 여격(dative)에서는 *to writenne* 혹은 *writenne*와 같이 사용되었다. 여격은 *writenne* 등과 같은 뚜렷히 구별되는 여격형태와 지배 전치사인

---

* 본 논문은 1995년도 공주대학교 자체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 되었음. *to*로 구성되었는데 이 지배 전치사인 *to*는 고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영어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대격 목적어가 아닌 여격 목적어를 대체로 취하였다. 이 옛날 굴절형태의 잔재가 소위 말하는 *to*와 함께 쓰이는 부정사이며, 이 *to*와 함께 쓰이는 *to*-부정사는 고대 영어의 여격형태인 *to*는 남아있고, 부정사의 접미사인 *-en*과 여격을 구별해주는 표식인 *-e*가 탈락되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여격은 이 여격을 구별지워 주는 *to*를 제외하면, 형태에 있어 주격 그리고 대격과 동일하게 되었다. 옛날의 여격어미인 *-e*는 *12*세기경에 사라졌으며, 이 여격표식인 *-e*가 사라진 이후에도 부정사 어미인 *-en*은 그때까지 살아 남았으며, 이 어미는 부정사가 동사의 주어 또는 목적어로 사용될 때 뿐만 아니라 전치사 *to*의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에도 부정사 어미로서의 기능을 했다. 모든 이러한 문법관계에서 *to*가 부정사의 표식으로서 느껴짐에 따라 부정사 앞에 *to*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 되었다. 접미사 *-en*은 *to aske*에서와 같이 자주 *-e*로 축소되었으며, 영국의 남부와 중부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16*세기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부정사 앞에 쓰이는 *to*가 충분히 부정사를 구별해주는 표식으로서 느껴짐에 따라 *to aske*가 *to ask*로 되는 것과 같이 이 접미사 *-e*는 사라지게 되었다. 'It may *rain*,' 'I shall *go*,' 'He will go,'의 예에서 *rain*과 *go*와 같은 단순 부정사는 이제는 더이상 부정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형(subjunctive form)이나 또는 미래 시제형을 이루는 요소로 느껴지는 것이다.

*to*와 함께 쓰이는 부정사는 원래 전치사 *to*에 의해 지배되는 여격에서 명사 였다. 그러므로 이 부정사는 이의 발달 과정의 첫 단계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전치사적 목적어(prepositional object)였다. 아직도 많은 문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to*는 전치사 *toward*의 뜻을 의미했으며, 본동사(main/principal verb)의 행동이 지향하는 바 바로 그것을 가리켰다. 예를 들면, 'Jealousy drove him *to do it*' 은 다른말로 말하면 'Jealousy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drove him *toward the doing of it*'을 의미했다. 유사하게 형용사의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면 'I am ready *to do it*' 은 'I am ready *in the direction of doing it*'을 의미했다. 전치사적 부정사의 *to*는 일련의 많은 문법 범주에서 아직도 다소간 전치사 *to*로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전치사적 부정사의 *to*는 오늘날에는 대부분 전치사로서가 아니라 부정사 그 자체의 한 부분으로서 느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치사적 부정사는 이제는 전치사적 관계에 더이상 국한되지 않고 '*To err* is human' 과 'Learn *to labor* and *to wait*' 에서와 같이 동사의 주어 또는 목적어로 또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to*는 부정사를 지배하는 전치사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전치사적 부정사가 동사 또는 형용사에 대해 원래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치사적 부정사는 동사 또는 형용사의 뜻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 또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느껴지게 되었다. 초기 고대 영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전치사적 부정사는 전치사 *to*가 전치사 *to* 원래의 뜻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전치사구였다. 전치사 *to*와 부정사는 함께 하나의 단위인 전치사적 목적어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은 함께 쓰인 동사의 뜻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ba ongan he *wepan*' (= Then he began *to weep*)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부정사는 타동사의 의미를 완결시켜 주는데 흔히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직접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고대 영어의 현대 영어로의 번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관계로 사용된 고대 영어의 단순 부정사는 현대 영어에서는 전치사적 부정사로 대치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이미 고대 영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전치사적 부정사는 점차적으로 모든 범주에서 동사의 의미를 완결시켜주는 적합한 형태로 느껴지게 되었다. 전치사적 부정사가 하나의 단위인 동사적 명사로 느껴지게 됨에 따라, 이것을 동사의 목적어로서 뿐만 아니라 동사의 주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자연스럽게 되었다. 왜냐하면, 명사는 동사의 목적어 또는 주어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은 전치사적 부정사의 구별되는 형태상의 이점으로 인해 크게 선호되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전치사 *to* 없이 사용되는 단순 부정사의 경우 전치사적 부정사가 수행하는 이러한 모든 섬세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법적으로 보면, *to*-부정사는 본래 문 중의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동사의 뜻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to*와 부정사가 밀접하게 밀착되어 한개의 문법적인 단위를 이루게 되었으며, 하나의 단위로서 동사의 목적어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to*가 붙지않는 부정사도 동사의 뜻을 보완하되 점진적으로 발달하여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고대영어에서는 *to*가 붙지 않는 부정사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로 *to*가 붙지 않는 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일이 드물게 되고 *to*가 붙는 부정사가 득세하게 되자, *to*-부정사가 전적으로 동사의 목적어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게 되어, 마침내 *to*-부정사가 모든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어로서의 위치가 굳어지자 동사적인 명사로 인정을 받게 된 *to*-부정사는 주어 등의 명사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to*-부정사의 용법은 확대되어간 반면에 *to*가 붙지 않는 부정사의 용법은 위축되어 그 용법의 범위가 매우 줄어들게 되었다.(1)

부정사의 문법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기원의 측면에서 보아 부정사는 동사적 명사(verbal noun)로 출발한 것이었으므로, 명사적인 성격과 동사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명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사의 이 두 가지의 문법적인 성격에서 명사적인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로 쓰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부정사는 명사적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인 성격보다는 동사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정사 앞에는 관사, 형용사, 속격 등이 올 수 없다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사 그 자체가 일반 동사와 같이 목적어을 취할 수 있고, 형식상의 주어를 취할 수 있다는 점과 부사가 수식할 수도 있고, 또 일정한 시제형이나 태형(voice form)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사는 동사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2)

[주]

(1)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there is a decrease in the use of the bare infinitive; thi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orresponding decrease in the use of a substantive by itself; just as a substantive is habitually accompanied by an article, definite or indefinite, so also when the infinitive is not standing in very close connexion with one of the light words which have from times immemorial required the bare infinitive, it has to be prefixed by *to*, which acts as a kind of verbal article.

_____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Pt. V. pp. 156-157.

(2) The partly substantival character of the infinitive is shown by its power to stand as a primary (as subject, object, etc.) as well as by its mixed active passive character in some cases. But otherwise the infinitive is now purely verbal, much more so than the gerund.

_____ Jespersen, *A Modern English Grammar*, Pt. V. p. 152.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II-1. 부정사절(infinitive clause)의 형태

수세기에 걸쳐 *to*-부정사와 이의 수식어들은 새로운 유형의 뚜렷한 종속절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는 한정동사(finite verb)를 가진 *that*절과 더불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that*절을 점차 밀어내는 현상까지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단순 부정사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능을 *to*-부정사는 갖게 되었다. 오늘날 *to*에 의해 도입되는 부정사절(infinitive clause)은 주격주어(nominative subject)와 한정동사가 뒤따르는 *that*에 의해 도입되는 딱딱한 절 보다도 더욱더 편리한 종속절로 느껴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문법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절은 똑 같은 것에 대한 두 가지 표현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to*-부정사의 *to*는 모든 이러한 축약된 절에서 하나의 접속사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that*-절을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to*-절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I am not eager *to go*'(또는 *that I should go*). 본래 부정사의 주어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앞 예문의 주어인 *I*에 있어서와 같이 주명제(principal proposition)속의 명사나 대명사 속에 포함되었다. 부정사의 주어는 주(본)동사, 대격, 여격 또는 동사의 전치사적 목적어일 수 있다. 이 구문의 초기 발전단계에서 부정사의 주어는 언제나 주명제(주절)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다만 함의(implication)에 의해서만 부정사의 주어였다. 부정사절의 이러한 간결한 옛날의 형태는 아직도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세기에 편리한 부정사 구문 용법의 확장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은 주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가 주명제 속에 없을 경우에 부정사 구문 자체의 주어를 부정사에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주어는 절의 *to*앞에 놓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았으며, 이 새로운 요소의 도입의 표식으로써 *for*가 사용되었다: 'I am not eager *for him to retuen*.' 이것은 *to*형태의 약간의 변이형에 불과하였고, 원래의 부정사 구문에서는 주어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주명제 속의 어떤 명사나 대명사 속에 포함 되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처음부터 부정사절에서 주어는 부정사 구문의 일부가 아니였으며, 후에 부정사가 그 자체의 주어를 갖게 되었을 때, 전에도 부정사 구문의 외곽에 주어를 놓았던 것과 같이 부정사 구문의 밖인 절 앞에 주어를 놓았다. *for*는 단지 여기에서 부정사가 그 자체의 주어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식적 기능만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II-2. 부정사절의 생략형(Elliptical Form of the Infinitive Clause)

초기 단계에서는 *to*는 아직도 주로 이것의 목적어인 부정사를 지배하는 전치사로 느껴졌다. 그러나 점차 이것은 절을 구별하는 하나의 자질을 갖게 되었으며, 뒤따르는 일련의 단어들을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 표식하는 기능을 하게 되었고, 지시가 이미 표현된 사고를 가리킬 경우에는 나머지 단어들은 생략하고 *to* 단독으로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다: 'I shall go to the celebration tomorrow, or at least I am planning *to* [*go to it*].' 이 구문은 14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용법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였다. 이 용법은 점차로 부정사절과 더불어 발전하여 지금은 부정사절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이전의 용법에서는 이미 표현된 사고를 가리키는 중성 대명사인 *it* 앞에 전치사 *to*를 놓는 것이 더욱더 보편적이었다: 'But shall we dance, if they desire us *to it*?' (Shakespeare, *Love's Labor's Lost*, V. ii, 145). 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옛날의 표현형태는 대중적인 언어에서 살아 남아있다: 'I can't read, nor I don't want *to it*'(Dickens, *Our Mutual Friend*, I. 31). 이러한 보편적인 *to* 형태외에 좀 덜 보편적인 생략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뚜렷한 어떤 표식이 없으며, 부정사절을 완전히 생략하고 맥락에서 사고의 줄기를 찾도록 하는 구문형태이다: 'Do you write to him!'---'I will since you wish me [*to* do so]' (Marryat, *The Settlers in Canada*, 11). 'Meanwhile she opened the little door of Ellen's study closet and went in there, though Ellen begged her not' (Susan Warner, *The Wide, Wide World*, Ch. XX. 1851). 지금의 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begged her not *to*'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를 명백히 하는 구별적인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 구문은 흔하게 쓰이지 않았다.

II-3. 분리 부정사(Split Infinitive)의 기원과 발전

부사는 강세를 받고 있는 단순동사 또는 강세를 가진 동사구 앞에 오며, 그 자신은 보통 강세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강한 감정의 영향하에서나 또는 부사의 논리상의 힘 때문에 흔히 강세를 지니게 된다. 부사 그 자체의 특수한 강세와 함께 이러한 특수한 어순은 *that*절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to*-절도 *that*-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사 그 자체의 특수한 강세와 더불어 이러한 특수한 어순이 *to*-절에 있어서도 있게된다. 이러므로 *to*는 부사에 의해 부정사로부터 분리되게 되며, 이것이 분리 부정사라는 표현에 이르게 된 것이다: '*To almost succeed*(또는 *That I should almost succeed*) is not enough.' 'I don't expect *to ever see him again*' (또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that I shall ever see him again). 'I wish *to utterly forget my past*' (또는 *that I may utterly forget my past*). 'It's sad experience *to always live from hand to mouth*'(또는 *when one must always live from hand to mouth*). 여기에서 *to*와 부정사 사이에 부사를 놓는 것은 엄격히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비문법적이라고 고려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응하는 *that*-절에서 *that*이 뒤따르는 절을 가리키는 한정 대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미 오래된 것과 같이, 어떤 보편적인 범주에서 보면 *to*-절에서 *to*가 전치사로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이미 오래된 점이다. *to*와 *that*는 이들의 발전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옛날의 힘을 잃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두 단어는 절을 도입하고 이 결과 자연스럽게 이 절에 속한 모든 단어들은 이들 단어들 뒤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보다 좀더 늦게 나타난 새로운 *for- to*-부정사 구문에서도 술부에 속한 모든 단어들이 비슷하게 *to* 뒤에 나타나게 된다: 'I am not eager *for him to ever return*.' 이러한 부정사 구문 이전의 형태에서 부사는 *to*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문이 한층 더 보편적인 표현 형태였다. 그러나 *to*가 절을 도입하고 있다는 감정이 커짐에 따라 부사를 *to* 뒤에 놓는 것이 더욱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부사를 *to* 앞에 놓는 이전의 형태에서는 부정사절의 시작을 표시하는 뚜렷한 표식이 없었다. 이로 인해 때때로 모호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He failed *to entirely to comprehend* it.' 이 경우에 entirely가 failed를 수식하는지 comprehend를 수식하는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두가지 해석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entirely가 comprehend를 수식 한다면 entirely를 comprehend 앞에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He failed *to entirely comprehend* it.' 이런 점에서 분리 부정사는 영어표현의 향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사 그 자체보다 전체적으로 부정사절에 속하며 구별적인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것으로 느껴지는 구별적 부사의 경우 *to* 앞에 나타나는 옛날의 이 부사의 위치는 가장 보편적이다: 'I've dropped in *just*(또는 *merely, only*) *to inquire how your father is doing.*' 특별히 *not*은 *to* 앞의 이 옛날의 자리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I desire, *not to discourage,* but to encourage.' 그러나 이러한 부사들 조차도 그것들이 부정사 그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to* 뒤에 때때로 놓이게 된다: 'It is good *to not ete* fleisch and *to not drynke* wyn' (*Romans*, XIV. 21. Purvey's ed., 1388).

때때로 부사는 부정사 앞에 나타나는 대신에 뒤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순의 변화는 부사를 강조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며, 언제나 뜻의 미묘한 차이와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분리 부정사 구문에서 부정사 그 자체는 중요한 단어이며 강한 강세를 갖게된다: 'He understood a good deal of it, but he failed to comprehend it *entirely*.' 부사는 때때로 분리 부정사 구문에서 강세를 갖게 된다. 그 때에는 두개의 강한 강세를 갖게 되는데, 즉 부사와 부정사가 강한 강세를 갖게 된다: 'She wishes to *utterly forget* her past.'

분리 부정사는 14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가장 오래된 이 예는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은 구문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He louied be lasse auber *to lenge lye* or *to longe sitte*'(*Sir Gawayne and the Grene Knight*, II. 87-88) = 'He (Arthur) did not like *to either lie or sit long*.' 'Bot to take be toruayle to my-self *to trwluf expoun*' (*ib.*, I. 1540) = 'but to undertake the task *to expound true love*.' 오늘날은 부사적 수식어와 목적어를 부정사 뒤에 놓는다. 이 흥미있는 오래된 예는 한가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to*는 여기서 더 이상 전치사로 느껴지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사와 목적어가 *to*와 부정사 사이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인의 감정속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에 오랫동안 깃들어 있던 *to*-절의 개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영어속에서 형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문의 출현으로 인해 새로운 절의 발전은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 *to*-절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어순상의 변화가 이어서 나타나게 되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초기의 예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후 수세기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아마 지금도 이 흥미있는 구문의 발전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14세기 후반에 두 학자, 즉 Wycliff와 John Purvey는 비록 오늘날에도 다른 부사와 같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없는 *not*의 경우에서 오늘날과 같이 분리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다: 'It si good *to not ete* fleish and *to drynke* wyn' (*Romans*, XIV, 21, Purvey's ed., 1388).

15 세기에 이 구문은 Pecock와 Fortescue 경에 의해 사용되었다. Pecock는 이 구문을 현대의 작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용법으로 그의 저서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for to so leie a side*, 등(*The Folwereto the Donet*, E.E.T.S., No. 164, p.97, 1454년 경) = *to thus lay aside*, 등. 오늘날 다른 부사만큼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없는 *not*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문은 찾아볼 수 있다: 'Y schall....swere *to not discouree hem*' (*ib.*, p. 138) = 'I shall pledge myself *to not inform on them.*' 이후 다음 3세기에 걸쳐 분리 부정사는 극히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 사용 되었다. 그러나 이 구문은 계속 사용이 확장되었다.

분리 부정사는 문법이란 살아있는 언어의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련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문법가들에 의해 비난을 받았으며, 그리고 많은 훌륭한 작가들은 이 분리 부정사의 사용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14세기 이래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되는 이 용법의 이점으로 인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이 용법이 폭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용법은 당연히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어느 한 작가나 화자에 있어서도 옛 용법과 새 용법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표현의 정확한 방향인 분리 부정사의 사용이 점점 강력한 힘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경향이 비록 이 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속된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에 대한 어떤 진정한 근거는 별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분리 부정사 표현이 결코 일반 대중언어의 특성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용법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에 이 전의 영어에서 일반대중의 언어에서 이 분리 부정사의 용법이 지배적으로 사용 되었다고 하는 어떤 뚜렷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용법은 문어와 구어에서 오래동안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살펴보면, 유명하지 못한 작가들 보다 유명한 작가들은 이 용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난을 두려워하여 이 용법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기에 들어서면서 예전의 어떠한 시기에 비해서도 이 용법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많은 작품들과 문헌 등에서 볼 수 있다.

만약 두개의 부정사가 사용될 경우 두번째 부정사 앞에서 *to*가 생략될 때 부사는 반드시 부정사 바로 앞에 오게된다: 'We pray you to proceed And *justly* and *religioiusly unfold*' (Shakespeare, *Henry the Fifth*, I. ii. 9). 수세기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이 구문은 분리 부정사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적 부정사(prepositional infinitive)와 유사한 것이 바로 전치사적 동명사(prepositional gerund)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치사는 동명사절을 도입하는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하나의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사절이나 한정동사를 가진 완전한 절에서와 같이 부사는 동사적 요소, 즉 동명사 앞에 오게 된다: 'When he looked at her he usually ended by smiling and sometimes by *suddenly laughing*' (A. Marshall, *The Old Order Changeth*, Ch. XIII). 동명사의 주어가 표현될 때 부사는 일반절에서와 같이 주어와 동명사 사이에 오게 된다: 'It(i.e., your case) will rest upon my *actually having* no complaint against you'(*ib.*, Ch. XXII). 이러한 예들은 한정동사를 가진 일반절과 동명사절과 부정사절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아주 기이한 것은 동명사 앞에 부사를 놓는 것은 비난하지 않고, 반면에 부정사절에서 부정사 앞에 부사를 놓는 것을 일반적으로 비난하여 왔다는 점이다. 일반절과 부정사절과 그리고 동명사절에서 이러한 힘은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발전은 비난하기 보다는 명확한 표현을 위해 더욱더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조동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의 분리부정사의 단순한 형태이며, 조동사를 포함한 복합형태에서는 부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동사적 의미를 갖는 부분인 동사의 강세를 받는 형태 앞에 오게 된다: 'Life's aim is simply to be *always looking* for tempta-tions' (Oscar Wilde, *A Woman of No Importance*, Act. III).

수동문에서 하나의 수동 조동사와 또 하나의 동사적 의미를 갖고있는 두개의 분사가 있는 곳에서는 형태가 약간 다르다. 이 두개의 분사는 대개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며 부사는 강세를 갖는 동사적 형태 앞의 이들 두개의 분사 사이에 올 수 없게 된다: 'She seems to have always *been admired*.' 그러나 이러한 분사적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서 조차도 부사가 동사적 행동의 양상 또는 정도를 가리키는 곳에서는 부사를 강세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받는 동사적 형태 앞의 분사들 사이에 놓아야 한다: 'She seems to have always *been kindly received.*' 'She seems to have always *been greatly admired.*' 이러한 예들에서와 같이 흔히 두개의 부사가 앞에 있게 되는데 하나는 수동 조동사 앞에 오는 보편적인 자리에 나타나는 부사이고, 다른 하나는 강세를 받는 동사적 형태 앞에 오는 양상 또는 정도부사(adverb of manner or degree)이다. 동사의 강세를 받는 부분 앞에 부사를 갖는 이러한 형태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단순 부정사를 분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비록 부사가 단순하게 조동사와 동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형태의 사이에 오게 되는데도 일반적으로 분리 부정사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다. 다른 곳에서와 같이 이 곳에서 어순은 독립된 문과 *that*-절에서 발견되는 어순에 아주 밀접하게 상응하고 있다: 'She has always *been kindly received.*' 'It seems that she has always *been kindly received.*' 부정사 구문에서 비분리 부정사(unsplit infinitive), 즉 *to* 앞에 부사를 갖는 형태가 또한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다: 'The former I do not remember *ever to have seen*' (Thomas B. Aldrieh, *My Cousin the Colonel*, Ch. I). 'She seems *always to have been* happy.' 그러나 이 구문은 가끔 모호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I remember plainly to have refused his offer.' 여기서 *plainly*는 *remember*나 *refused*를 수식할 수 있다. 만약 후자의 *refused*를 수식하는 경우라면 분리 부정사는 이 의미를 명백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 'I remember *to have plainly refused* his offer.'

또한 부정사가 계사인 *be*이고 부정사절에서 술어가 형용사, 명사 또는 전치사구일때, 대개 부사를 강세를 받는 술어 앞에 놓게 된다: 'I intend to be *always watchful*' (*a watchful observer*, 또는 *on the watch*). 그러나 때때로 비분리 부정사 구문에서와 같이 부사가 *to* 앞에 오기도 한다: 'The girl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seemed *always to be* in half-mourning' (Thomas B. Aldrich, *The stillwater Tragedy*, Ch. IX).

부사가 언제나 *to* 앞에 오게되는 한 경우가 있다. 즉 부정사절이 술어형용사나 술어명사의 힘을 가진 계사를 뒤따르게 되는 경우이다: 'It was *hardly to be expected.*' 'Life's aim is *simply to be always looking* for temptations.' 이들 문장의 각각에서 부정사절은 술어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로인해 하나의 단위로 느껴지기 때문에 대체로 문장에 속해있는 부사는 부정사절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두번째 예에서와 같이 부사가 단지 부정사절에 속해있는 곳에서는 이 부정사절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III. 부정사의 시제와 태 (Tenses and Voice of the Infinitive)

비록 부정사가 원래는 명사였으나, 시간의 흐름속에서 이것은 시제와 태의 속성을 얻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사의 성격에 접근하게 되었다. 한정동사와 같이 부정사도 두개의 태 즉, 능동태와 수동태를 갖고 있다. 수동태의 경우를 제외하면 여기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수동의 기능에서 부정사는 점진적으로 수동의 형태를 발전시켜 왔으나, 소수의 범주에서 수동의 기능 속에 원래의 능동형태가 잔존하고 있다.

한정동사와는 달리 부정사는 단 두개의 시제 즉, 현재와 완료만을 갖고 있다. 이 두개의 시제사용이 특수한 어려움을 제기하게 된다. 이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자.

비록 부정사가 법(mood)을 나타내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갖고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정사는 한정동사의 가정법 형태에 의해 표출하는 관계들 중의 일부를 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다: 'I wrote him *to come* at once' (= 'that he *should come* at once'). 'I do not know *what to do*' (= 'What I *should do*'). 'I should be happy if I knew how *to accomplish* this' (= 'I *might accomplish* this').

III-1. 본동사 뒤에서의 부정사 시제의 용법 (Use of the Tenses of the Infinitive after a Full Verb)

여기서 부정사의 시제는 본동사의 시제에 대해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부정사의 현재시제는 본동사의 시제와 관련하여 본동사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나 미래시간을 나타낸다:

'I wish *to do* it.'

'He was very foolish *to do* it.' (이 이전의 영어에는 'He was very foolish *to have done* it' 의 표현이 쓰였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대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The Indian must have possessed no small share of vital energy *to have rubbed* industriously stone on stone for long months till at length he had rubbed an ax.'

(*to rub* 대신에 부정확하게 쓰이고 있음)

_____Thoreau, *Journal*, I. p. 40

'I intend to *write* a line or two to her soon.'

'I yesterday intended *to write* a line or two to her, but forgot *to do* so.'

'I managed *to do* it without his help'(= I *did* it without his help).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연대를 나타내는 경우에 본동사의 현재시제 그 자체가 과거를 가리키므로 부정사 현재는 과거를 나타낸다:

'This is the fourth case of lockjaw *to occur* (i.e., that *has occurred*) within a week.'

부정사의 완료시제는 본동사 시제에 앞서는 시간을 나타낸다:

'I am proud *to have been* able to help. It gives recreation a better relish *to have* first *accomplished* something.'

_____ Harriet Connor Brown, *Grandmother Brown's Hundred Years*, 279.

'He found about a half dozen Seniors whom he did not remember *to have noticed* before.'

'I consider myself lucky *to of*(*have* 축약형의 구어형태) *found* out about it before it was too late.'

_____ Ring Lardner, *Saturday Evening Post*, July 11, 1914.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 속에는 현재의 감정상태에서의 표현일 경우:

'I should like *to have given* him something.'

_____ Dickens, *A Christmas Carol*, II. 41.

과거의 상황과 관련 되었으나 그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표현의 경우:

'I should have liked *to make* her a little present.'

_____ Thackeray, *Fanity Fair*, I. Ch. XII.

부정사의 현재완료시제는 본동사 시제에 앞서야 한다는 원칙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은 언제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영어에서는 이전의 영어에 있어서 보다 훨씬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원칙의 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영어 표현에 있어 이 원칙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더욱더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에 있어 부정사는 단지 두개의 시제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시제의 용법이 어떤 원칙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다면 영어표현은 불분명하게 될 것이다.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부정사는 미리 기술한 시제와 똑같은 용법으로 조건이나 결론을 형성하는 축약절로 흔히 사용된다:

'I should be glad *to go*'(= *if I could go*).

'I should have been glad *to go*'(= *If I could have gone*).

'What would I give *not to havae heard* the calamities fallen on the heads of the King and Queen of France' (=*if I had not heard,* etc.).

_____ Horace Walpole, *Letter to Miss Mary Berry*, June 28, 1791.

'Here was enough *to havae infected* (지금은 보편적으로 *to infect* = *that it could have infected*) the whole city, if it had not been taken in time'.

_____ Ben Jonson, *Euery Man in His Humour*, V. v. 28. 1616.

위의 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경우에 과거시제 뒤에서 현재형 부정사 대신에 완료부정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이 어법은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문학작품에서 예전보다는 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어법은 할 수 있다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